

2018 학년도 1 학기 교환학생 후기

오스트리아 그라츠 공대(TU GRAZ)

화학생물공학부

정혜인

안녕하세요, 2018 년 2 월부터 7 월까지 오스트리아 그라츠 공대에서 교환학생으로 생활하고 돌아온 화학생물공학부 정혜인입니다. 공대 홈페이지에서 각종 후기를 뒤져보며 어떤 학교를 1 지망으로 신청할지 고민하고 또 짐 싸면서 뭐가 필요할지 메모하고 있던 제가 이제는 6 개월을 모두 마치고 같은 자리에 앉아 후기를 적고 있다니...!! 감회가 새롭고 다시 생각해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라며 개인적으로 제가 교환가기 전에 궁금했던 내용 위주로 적어볼게요.

1. 사람들

제가 교환에 가기 전에 가장 걱정했던 것은 바로 '외국인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좁다는 한인사회에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는 욕심과 작게는 그저 영어나 조금 늘어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모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보니 더더욱 저는 이게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을 편하게 만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그라츠가 가진 대학 도시, 학생 도시의 특성 덕분이었어요.

그라츠에는 그라츠 공대와 유니 그라츠(주로 인문, 사과대 그리고 자연대 위주) 대학을 모두 합쳐서 6 개의 대학이 공존하는 도시로, 전체 인구의 30%이상이 학생인 학생 도시입니다.



그러다보니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젊은 층이 많고, 또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그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어요. 게다가 교환학생들을 큰 규모로 받고 또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교환학생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으로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어려움이 없고, 특히 교환학생들을 도와주는 ESN 이라는 단체의 활동도 많아서 교환학생끼리 만나기도 매우 수월해요.

하지만 그래도 모두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친해지기란 쉽지 않겠죠? 개인적으로 ESN 이 정기적으로 주최하는 office pub 에도 자주 가려 하고 한 번 만나면 계속 관계를 지속하려 노력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같은 나라 혹은 같은 언어권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분위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한인 친구들과 중국/대만/홍콩/태국/카자흐스탄 출신 친구들과 함께 한 시간이 많았어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을 보니 주로 같은 멘토 그룹으로서, 그리고 같은 수업을 듣거나 기숙사에 같이 지내면서 친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멘토 그룹은 꼭 신청하세요!! 저 역시 멘토가 바빠서 자주 보진 못 했지만 처음 분위기 적응이나, 병원을 알아보고 자전거를 살 때처럼 실용적인 도움까지 받았고 또 같은 멘토 그룹 친구와도 추억을 많이 쌓았거든요.

2. 기숙사

그 이후로 가장 걱정되었던 것은 기숙사인데요, 저는 TU Graz 에서 추천하고 서울대 후기에도 많이 적혀있던 OEAD 기숙사에 신청해서 묵었습니다. 신청 과정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안내해주는 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어려운 단계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보증금 (약 800 유로 = 한화 100 만원) 및 월세(월 395 유로)가 비싸고 나중에 보증금 받을 때 청소비 (약 55 유로)까지 빼기 때문에 약간 속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기숙사에 대한 정보도 TU GRAZ 에서 제공하고 있기는 하니 부지런히 들어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WIST 기숙사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많았고 가격도 보다 저렴한 편이니 한 번 시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묵었던 기숙사는 Neubaugasse 건물로, 6 인 플랫 내에 1 인실이었습니다. 노이바우 가세의 장점은 기본적인 조리 도구들이나 침대 및 이불과 베개가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후라이팬이 코팅되지 않은 거라서

많이 늘러붙기도 하는데 주변에서 한학기 쓸만한 걸로 싸게 구입하실 수도 있으니 (Teddy/FlyingTiger 나 IKEA) 참고하셔서 플랫 메이트들이랑 같이 마련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침대의 경우 불편함이 없었고 특히 저희는 학기 중에 매트리스를 새로 바꿔주면서 매우 안락하고 편안한 수면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니 시차 적응이나 잠자리 적응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ㅠㅠ) 샤워실도 있는데 온수가 아주 팔팔 나오고 샤워부스가 투명해서 웬만하면 샤워실 문을 잠그고 샤워했다는 점 빼고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샤워실과 화장실(변기+손 씻는 세면대)이 따로 있다 보니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일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디퓨저나 푸푸리 같은 걸 챙겨가시면 보다 쾌적할 거예요. 또한 운이 좋으면 테라스가 붙어있는 방이 걸리기도 하니... 처음에 신청할 때 한 번 메시지로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높은 층이면 경치가 생각보다 좋기도 하고, 높은 층이 아니어도 테라스가 있으면 빨래도 널고 맑은 공기도 쐬고 정말 좋거든요. 노이바우 가세는 또한 다양한 브랜드의 마트들과 은행, 귀여운 가게들이나 싼 마켓까지 다양한 편의시설이 주변에 있지만 도심의 쇼핑거리(Herrengasse, 도보 20 분 자전거 10 분)나 학교 (특히 inffeldgasse, 도보 50 분 자전거 20 분, 추후에 다룰 예정)에서 가장 멀리 있습니다. 트램 정류장에서도 조금 멀리 있지만 중앙역에는 가까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PPC 라는 클럽이 위치하고 있어서 목/금이나 주말 밤마다 리듬이 울려서 잠귀가 열으시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정말 구립니다. 물론 유럽 인터넷이 거기서 거기 이기도 하지만 제가 있는 기간 동안 노이바우 가세의 와이파이는 정말 너무 느리고 자꾸 끊기는 등 여타 OEAD 기숙사 중에서도 안 좋은 편에 속했어요. 그런데 공유기는 사용 금지라고 공공연히 되어 있고 연결해도 큰 유익은 없을 것 같으니 챙기실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노트북 랜선을 (특히 맥북이시면 어댑터까지...) 챙겨오시면 좋을 겁니다.

3. 학교 – TU Graz, Chemical and Pharmaceutical Engineering

저는 주전공인 화학생물공학에서도 공정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Chemical and Pharmaceutical Engineering 로 교환학생을 신청했고 관련 분야의 수업들을 들었습니다. 이 과를 비롯해서 전자 공학이나 기계 공학의

경우에는 TU Graz 캠퍼스 중에서도 가장 외곽에 위치한 Inffeldgasse 에 대부분의 수업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냥 서울대에서 301/302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교내 식당인 Mensa 에서 그릴 메뉴가 맛있고 좀 더 푸짐하게 나오는 편이고 샐러드바에 신선하고 다양한 채소들이 매번 나와서 그나마 위안이었습니다. 학생증이랑 Sparkasse 국제학생증을 보여주면 뭔가 할인이 되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니 한 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캠퍼스에 모제호프가 상당히 가까우니 위 학과 수업을 주로 들으실 것이라면 참고하세요.

그 외에도 Biomedical 이나 자연대 수업들은 주로 Neu Technik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데 인펠드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카페테리아라고 자습할 수 있는 공간이 1 층에 넓게 있어서 평소에 가기 좋습니다. 저도 수업을 하나 듣기도 했고 주변에서 들은 바로는 영어 수업도 다른 분야에 비해 많고 랩 수업도 많은 편이라서 생물 전공이나 관련 공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그라츠에 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공의 경우에는 영어 수업이 비교적 적기도 하고 서울대에 비해 다양한 과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물 쪽에서는 서울대보다 세분화된 과목들이 있었고 대부분이 영어 강의였습니다. 게다가 노이 테크닉 쪽에 있는 전공들은 UniGraz 랑 연계가 되어 있기도 해서 선택의 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Steyrergasse 의 기숙사와 가깝습니다.

이어서 제가 들었던 수업들의 리뷰를 짧게 해 보자면...

- Plant and Process Engineering : 하나의 공장을 짓기 위한 계약 협상부터 예산 측정, 그리고 세부 디자인 및 건설까지 모두 다루는 수업이었고 기말이 오픈북이었습니다. 다른 렉처와 비슷하게 출석은 필요 없으나 P&ID 에 관한 설명은 듣지 않으면 시험에서 한 문제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학기에 경우 영어로 열린다고 공지했지만 교수님 본인들은 모르셨던 관계로 모든 강의자료를 구글 번역기에 넣어서 독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하고, P&ID 및 장치를 설명해주는 교수님은 아예 수업을 독일어로 진행하셔서 모두 독학했던 과목이기도 합니다. 추후에는 영어로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하셨지만 혹시 모르니 신청 전에 메일로 여쭙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Mass Transfer Unit Operation (Lecture and Practice) :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유일한 학부 수업인데 화생공의 분리공정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Lecture 교수님이 정말 재미가 없었고 시험이 예상 외로 어렵게 나왔는데 다음 학기부터 좀 더 빠셴 교수님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Practice 에서는 렉처에서 다룬 이론과 관련된 문제들을 푸는 시간으로 수밧연의 연습 시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시간 께 채워서 수업하시는데 다른 문제만 올려주고 솔루션은 올려주지 않아서 출석을 하지 않으면 공부하기 쉽지 않으므로 친구와 께 같이 신청하거나 가자 마자 친구 사귀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에 다른 조교님이 들어오셨는데 전반부 조교님은 강의력이 좋았고 후반부 조교님은 강의력은 별로지만 교환학생에 대한 배려가 넘쳐나는 분이었습니다.
- Molecular Enzymology : 한 학기를 3 session 으로 잘라서 세션마다 다른 교수님이 들어와 자신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이론을 가르쳐주시는 세미나 수업이었습니다. 내용은 주로 유기화학과 생화학을 기초로 효소들의 작용을 설명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출석 체크는 하지만 성적과는 무관하고, 교수님들의 영어실력이 매우 유창하셔서 오히려 조금 애먹었던 과목이기도 합니다. (너무 빠르게 말씀하시는...) 그렇지만 시험 대신 각 세션에 대한 과제가 나오는데 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풀어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었고 학점도 후하게 주시는 편입니다.
- Energy System Analysis : 기업체에서 현직으로 일하시는 분이 학교로 오셔서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과거와 현재 에너지 산업 구조와 그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그래서 지구온난화/이상기후 현상을 어떻게 최소화해갈 수 있을지 배울 수 있습니다. 5 일 동안 하루 종일 수업하는 intensive 과목인데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넉넉히 주시니 크게 힘들진 않습니다. 또한 끝나고 다같이 기말 일정을 조율하는데



저희는 끝나고서 일주일 뒤에 봤고 만약에 여기서 일정이 맞지 않으면 교수님이 일하시는 비엔나로 직접 찾아가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시험은 oral 로 이뤄지는데 저희의 경우는 4 명이 한 조로 다같이 들어가서 한 명씩 두 질문을 받아 답하는 구조였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였고 도와주시려고 많이 힌트도 주시지만 수업 때 한 번 듣거나 모든 자료를 한 번씩 보지 않았다면 답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들은 수업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과목입니다.

- German Intensive Course

: 저의 경우 선생님이 친절하셨는데 아주 깐깐한 선생님도 존재하신다고 합니다. 학점 인정도 안 되고 (중요) 돈도 내야 해서 강력 추천하지는 않지만



미리 들어두면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마트에서 어떤 게 닭고기인지 혹은 현지 친구들에게 건넬 인사말 정도 배울 수 있어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교환학생이나 유학 온 학생들이 듣기 때문에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처음 접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4. 교통

그라츠에서는 1 회권이 약 2.4 유로로 개시 후 1 시간 동안 모든 트램과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는 않지만 검표원들이 가끔 일상복을 입고서 탄 채로 확인하면 60 유로 상당의 벌금을 그 자리에서 내야 하기 때문에 (없으면 돈을 뽑으러 ATM 까지 따라감) 그냥 사고 타시기 바랍니다. 버스에서는 아저씨에게 현금을 내고 표를 살 수 있고 트램의 경우에는 매표기가 있는데 카드나 동전만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기권을 구매해서 다니고 교환학생의 경우 학생이라고 증명할 수만 있으면 할인된 가격에 4 개월짜리 정기권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학기초에 자전거를 구입해서 다녔는데요 보라매에서

1 시간만 자전거를 타도 긴장한 탓에 어깨가 빠근했던 저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차나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배려해주고 자전거 도로도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이바우 근처는 자전거 도로가 바로 있어요) 대신 주의할 점은 트램 레인인데요, 이 다니는 길의 경우 그 레인에 바퀴가 끼서 자전거가 휘하고 쓰러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며 운이 안 좋으면 심하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 번 급하게 가다가 꺾는 길에서 그런 사고가 나서 손바닥에 난 상처를 꼬맸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 친구를 불러서 트램을 타고 LKH 대학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우스 닥터들이 많지만 일하는 시간도 제멋대로고 처음 찾아가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학 병원은 다들 영어도 잘 하시고 게다가 GKK 가 모든 비용을 대기 때문에 비용 걱정 없이 해준다는 거 다 받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English speaking house doctors 를 찾아가시면 되는데 학교에서 그 리스트를 나눠주기도 하고 구글링 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GKK 가 비싸긴 하지만 다른 보험과 달리 진료비를 아예 낼 필요조차 없다는 게 장점이고, 또한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어떤 약을 사든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 최대한 활용하세요!

교통 얘기하다가 갑자기 병원으로 넘어갔는데... 하하 다시 주제로 돌아가자면 자전거 타고 다니면 정말 좋습니다. ☺ 그런데 자전거를 마련하는 게 문제겠죠! 저의 경우에는 중고 자전거 가게에서 할인한다길래 멘토 따라 갔다가 바가지 써서 정말 안 좋은 상태의 자전거를 할인된 가격으로 90 유로에 샀습니다. 다시 팔려고 하니까 자전거 가게 사장님이 어디서 이런 걸 샀냐고, 원래 부품은 하나도 없고 모두 고장났다가 대체된 거에 상태 이상하다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분이 부르신 가격에 아는 후배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친구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자전거를 아주 좋은 상태인데 40 유로 샀더라고요. 중고 자전거를 사실 거라면 무조건 100 유로는 안 넘는 가격으로 사시되 앞뒤 라이트랑 브레이크 상태를 직접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중고 자전거 가게는 대부분 덤탕이 섞우는 경우가 많으니 페이스북에 그라츠 교환학생 페이지를 적극 이용하시고, 다시 그곳에 팔면 좋아요.

그라츠 내의 교통과 관련된 앱으로는 BusBahnBim 이 있는데 한국의 버스 앱처럼 모든 트램과 버스에 대해서 노선도와 정류장에 따른 예상 도착 시각,

그리고 주소나 지명으로 경로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막차 시각을 알기에도 유용합니다. 그외에도

- 구글맵: 언제나 여행의 필수품이죠. 특히 데이터 로밍이 안 되는 동유럽권으로 가신다면 가는 도시의 지도를 다운로드에서 가시기 바랍니다.
- ÖBB: 오스트리아 내의 기차 앱입니다. 25 세 이하면 19 유로에 할인권을 살 수 있는데 저는 이걸로 할인받아서 할슈타트나 비엔나, 잘츠, 류블랴나(슬로베니아)만 다녀왔는데도 본전 뽑은 느낌이었어요. 미리 찾아보시면 로마로 가는 야간 기차나 다른 멋진 곳들도 가실 수 있습니다.
- FlixBus: 역시 유럽여행자들에게 유명한 앱인데 특히 국제학생증 있으면 3 유로 할인 쿠폰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로도 매번 10% promo code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티켓 살 때마다 구글링해보세요. 또 ESN office 에 가면 할인쿠폰이 쌓여있으니까 뭐 신청하러 갈 때마다 한움큼 집어오시기 바랍니다.
- RyanAir: 이건 앱은 아닌데 ESN 에 가입해서 멤버가 되시면 할인 받을 수 있어서 올려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ESN 카드를 만든다 (가입비가 5 유로 정도)
2. ESN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등록하고 계정을 만든다 (승인에 어느 정도 시간 소요)
3. 승인이 됐다면 라이언 에어 홈페이지에서 my dashboard 나 개인정보 관련 항목에서 esn 등록하는 페이지로 들어간다.
4. 거기서 필요한 정보와 esn 카드 번호 or 계정을 입력한다 (역시 승인 필요)
5. 라이언 에어에서 승인을 받으면 동일한 페이지에서 항공편을 검색해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산다! (+ 체크인 수화물 1 개 무료)
*주의: 할인티켓은 구매일에서 30 일 이상 남아있는 항로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또 방학기간 (성수기, 여름학기의 경우 6/30 일 이후) 에는 적용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플랫폼메이트들이랑 공포영화 보고 각자 나라 음식 소개한 거, 학기

중간에 라이트 페스티벌이 열린 거, 무어강 따라서 자전거 여행 다녀온 거, 혹은 그냥 트리베카라는 카페에 앉아서 베이글 샌드위치 먹던 거 등등 추억이 한더미인데 적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들실 것 같아서 이만 말을 줄이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 생애 가장 활동적이고 마음이 편한 시간이었고 익숙한 집을 떠나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은 분들 혹은 현실에 치여 사는 스트레스로부터 잠시 자유로워지고 싶은 분들에게 완전 추천합니다. 이렇게 다녀올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서울대 공대 대외 협력 본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